

## 조선시대 影堂의 건립 경향과 禮學 확산 이후의 변화

Research on the Tendency of *Young-Dang* Construction and Changes after spreading the Study of Confucian Courtesy in *Joseon* Dynasty

배 창 현\*

Bae, Chang-Hyun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 Abstract

*Young-dang*(影堂) is a ritual pavilion where figures of a dedicated person is enshrined. According to literature, establishment of *Young-dang* architecture is thought to have the affinity with Buddhist tradition in the beginning of its history. A tradition of enshrining figure could be found especially in Buddhism. Until the mid *Joseon* dynasty, enshrining figure made of wood, clay and bronze was quite often at *Young-dang*. In Confucian ritual tradition, a pavilion where enshrining ancestor's sprit tablet called *Sadang*(祠堂) or *Myo*(廟). In regarding portrait is a sort of figure, it has to be concerned with Buddhist ritual tradition. For this reason, *Young-dang* started to be distinguished from older aspect of existence in mid *Joseon* dynasty when the study of Confucian courtesy widely spread. It show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Young-dang* architecture from Buddhist tradition to Confucian tradition in *Joseon* dynasty.

주제어 : 영당, 조선중기, 예학,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Keywords : *Young-Dang*(影堂), Mid *Joseon* Dynasty, Confucian Courtesy, *Sinjeung-Donguk-Yeoji-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Yeo-Ji-Do-Seo*(輿地圖書)

## 1. 서론

전통시대 한국 건축의 廟 또는 祠堂에서 제향 대상의 상징은 주로 문자로 이루어진 위패가 사용된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전에는 사당에 위패와 함께 초상화나 영정을 봉안하거나 像만을 봉안하는 제향 공간도 적지 않았다. 위패만을 사용하는 전통이 민간에까지 보편화된 것은 유교의 예법이 완연하게 자리 잡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한국 건축에서 위패가 아닌 상을 봉안하는 건물들 중 임금의 초상인 御眞을 봉안했기 때문에 건물의 격식을 높여 眞殿 또는 影殿으로 지칭된 것들이 있다. 어진은 특히 습기에 약했기 때문에 살피고 바람에 말리는 등의 진전 의례가 주기

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sup>1)</sup>

影堂은 이보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제향 공간에 상을 봉안한 건물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통일신라시기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된다.<sup>2)</sup> 동아시아의 제향 공간에서 상을 봉안하는 전통이 고대 사찰의 불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더해 영당이라 명명된 건물들의 존재를 통해 불전 외에도 승려들의 상을 봉안한 공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영당의 기원 역시 불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 Corresponding author : baechang1@ulsan.ac.kr

이 연구는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과제번호: NRF-2020R1H1A1A01052132)

1) 안선호, 『조선시대 진전(眞殿) 건축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6쪽.

2) 당대 사찰의 금석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 887년, 하동孫. 是用建六祖影堂, 彩飾粉墻, 廣資導誘, 經所謂, 爲悅衆生故, 綺錯繪衆像者也.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890년, 보령公卿守宰, 之歸仰, 像殿影堂, 之開勸, 故翰林郎, 金立之所撰聖住寺碑

보여 진다. 실제로 조선중기 이전까지는 제향 공간에서 위패 대신 상을 봉안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고려시대 궁궐안의 진전으로 알려져 있는 景靈殿에서 역대 왕과 왕비의 영정을 봉안하고, 여러 진전사원을 운영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sup>3)</sup> 이와 같은 모습은 조선전기 개성 성균관이나 평양 문묘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제향 대상의 상을 봉안한 경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sup>4)</sup>

조선중기 이후로는 불교의 유습이라는 이유로 사당에 봉안된 상을 파괴하고, 위패로 대체하는 일이 진행되기도 했다.<sup>5)</sup>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에 건립된 서원들에서도 배향자의 상을 봉안하기 위해 영당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문중에서 영당을 지어 운영했던 사례도 많다. 따라서 영당의 건립 자체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했던 조선 중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용인되며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전은 왕실이 건립이 주체이고, 각종 의례를 행했던 만큼 건물과 의례에 대한 기록이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건축역사 분야에서는 주로 진전의 건축형식과 의례와의 관계가 다루어졌다.<sup>6)</sup> 역사학 분야에서도 어진을 봉안했던 진전을 중심으로, 사당의 한 종류로써 영당이 다루어지기도 했고, 경제사적 관점에서 사대부가문의 영당 건립행위가 다루어지기도 했다.<sup>7)</sup> 미술사학 분야에서는 주로 영당에 봉안되었던 초상의 도상적 특징과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지며, 봉안

장소인 건물에 대한 내용들도 일부 소개되었다.<sup>8)</sup>

선행 연구들을 통해 현존하거나 구체적인 문헌 자료가 남아있는 진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들이 많다. 그러나 사대부를 중심으로 문중에서 건립하고 제향했던 민간의 영당 운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당대의 유구가 별로 남아있지 않고, 관련된 문헌 자료도 잘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등의 지리지를 통해 당대에 존재하고 있던 영당의 분포와 건립 경향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조선중기 이후 禮學者들의 문집에서는 영당 제도에 대한 당대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당 건립 과정의 기록을 상세히 남겨놓은 일기류의 문헌을 통해 당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중기를 전·후로 뚜렷이 변화된 영당 건립의 경향과 당대 예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초상 봉안과 제향 전통의 맥락이 보다 면밀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 2. 조선시대 영당의 건립 주체와 유형

### 2-1. 영당의 건립 주체

영당은 건립 주체에 따라 왕실이 주도하여 건립한 王室영당, 사대부나 민간에서 주도하여 가문의 사당으로 건립한 私家영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문중의 조상을 배향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인물이 활동한 지역과 관계되어 기록의 의미로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이 주도하여 건립한 祈福영당이 있다.

격이 높은 왕실영당의 경우 대부분 고유의 殿號를 가지며, 이중 진전의례를 지낸 곳을 한정하여 진전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sup>10)</sup> 진전의 제도는 고려의 개국시기로부터 활발히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태조의 상을 봉안한 건물은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개경을 비롯한 사찰과 궁궐에 8곳, 평안도 영유와 충청도 천안 등지에 영전과 묘로 지칭한 곳을 두어 총 12곳으로 그 수가 가장 많다.<sup>11)</sup> 진전의

3) 안선희, 앞의 책, 2011, 22-27쪽.

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권, 개성부 상(開城府上) 성균관(成均館) 단현문(炭峴門) 안에 있다. 대성전(大聖殿)에는 오성 십철(五聖十哲)의 소장(塑像)을 봉안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1권, 평양부(平壤府) 문묘(文廟) 향교(鄕校)에 있다. 오성(五聖)과 십철(十哲)이 모두 소장(塑像)이다.

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주부(全州府) [성황사(城隍祠)] 기린봉(麒麟峯)에 있다. 관찰사 이언호(李彦浩)가 소장(塑像)을 부셔버리고 위판(位版)으로 대신하였다.

6) 김동욱 외, 「화령전의 제례의식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05, 1호, 57-70쪽.; 이강근, 「조선 후기 濬源殿의 기능과 변천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 2010, 35호, 239-268쪽. 안선희, 앞의 책, 2011.; 장필구, 전봉희, 「고종國葬과 창덕궁선원전의 조성」,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 춘계, 125-132쪽.; 장필구, 「복원연구를 통한 永禧殿의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7) 유홍렬, 「朝鮮祠廟發生에 對한 一考察」, 『진단학보』, 1936, 5호, 119-164쪽.; 김세은, 「조선시대 眞殿 의례의 변화」, 『진단학보』, 2013, 118호, 1-29쪽.; 이수환, 「조선 후기 안동 향리 권희학 가문의 사회, 경제적 기반과 봉강영당 건립」, 『대구사학』, 2012, 106권, 201-240쪽.; 김우진, 「숙종의 강화도 축성과 御眞의 奉安」, 『朝鮮時代史學報』, 2019, 90호, 191-234쪽.

8) 이수미, 「경기전 태조 어진(御眞)의 조형적 특징과 봉안의 의미」, 『美術史學報』, 2006, 26호, 5-32쪽. 김진희, 「조선시대 사대부 초상화에 내재된 유교정신에 관한 연구 -사당에 봉안된 영정 중심으로-」, 『동양예술』, 2014, 31-52쪽.; 박정애, 「조선시대 주자 숭모열과 그 이미지의 시각화 양상」, 『大東文化研究』, 2016, 93호, 199-241쪽.

9) 최근의 사례로는 1978년에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1936)를 배향한 단재영당이 청주에 지어진 것을 들 수 있다.

10) 안선희, 앞의 책, 2011, 4-6쪽.

11) 김성환, 「고려시대 태조(太祖)의 진전(眞殿)과 봉업사(奉業

건립은 조선 개국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조선 태조도 개성부의 목청진을 비롯해 5곳에 어진을 봉안했으며, 이후로도 선원전, 영희전, 신선원전 등의 열성 진전들이 건립되고 관련 의례가 지속되었다.

한편, 진전의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왕실의 주도로 지어져 어진을 봉안하고 봉심, 포쇄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했던 건물들도 다수 존재했다. 영조대에 강화부궁에 지어진 만녕전, 정조대에 창덕궁 후원에 지어진 주합루 등도 초상화를 봉안했던 건물이라는 점에서 왕실에서 건립한 영당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 왕실영당은 왕조의 교체, 전쟁 등 정치적 상황, 지배이념의 변화 등으로 인해 건립 경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고려시대부터 지어지기 시작해 조선후기까지 이어졌다.

이와는 달리, 사대부 또는 유림이 건립의 주체가 된 것들은 사가영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장례와 제례에서 영정을 사용하는 것을 불교적 속례로 보며 이단시했던 조선 초·중기에는 사가영당의 수가 왕실영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성리학자들이 초상화를 널리 수용하고, 왕실에서 하사한 공신들의 초상이 많아지게 되며 이를 봉안하기 위해 지어진 사가영당의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보이지 않던 영당의 분류가 1760년의 『여지도서』에는 단묘의 분류에 독립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가영당 건립의 증가세는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1607-1689)과 같은 고려와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배향한 영당이 다수 건립되며 더욱 가속화 되었다. 1697년에 건립된 충북 옥천의 龍門影堂을 비롯해 제천의 紫陽影堂과 黃江影堂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영당이다. 이색의 영당 역시 청주, 연천 등 여러 곳에 있었다.<sup>12)</sup> 조선 전기의 문인 신숙주(申叔舟, 1417-1475)를 배향한 곳도 고려신씨 종중에서 건립한 충북 청주의 墨井影堂, 청원의 九峰影堂 등 두 군데 이상이다. 이러한 영당들은 후손이나 제자들의 지역적 확산과 더불어 여러 곳에 지어지게 된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제작된 여러 모본

寺)』, 『선사와 고대』, 2018, 57권, 58-67쪽.

12) 보물 제1215호로 지정된 이색초상은 4본 5점으로 모두 관복을 입고 있는데, 각각 누산영당본, 목은영당본, 영모영당본, 대전영당본이라는 명칭으로 전한다. 이 밖에도 평상복을 입은 초상화가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이색 영당은 이밖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서울의 종로구 수송동에도 목은선생영당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현재도 한산이씨 가문에서 춘·추계 차례제 등이 행해지고 있다.

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1926년에 간행된 『孤雲集』의 祠院편에는 최치원(崔致遠, 857-?)이 배향된 14곳 중 합천의 학사당, 대구의 계림사, 서산의 부성사, 하동, 창원, 청도, 울진, 영평, 포천 등지에 영당이 지어져 전국에 총 9 곳이 있었다고 하니, 절반 이상의 배향지에 최치원의 상을 봉안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청도 영당이 건립이 1920년이니, 사가영당의 건립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청도영당의 기문에는 참배 시 최치원의 風儀를 확인할 수 있는 眞影을 직접 볼 수 있다는 효용을 영당 건립의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sup>13)</sup>

한편, 기복의 장소에 지어진 영당도 있다. 현재 여수시 국동어당단지 내에 있는 여수 영당은 조선 시대에 건립되어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영당은 이전부터 해안가에 위치하며, 최영, 이순신 등의 무신과 용왕신등의 상을 봉안하고 풍어굿을 지내는 장소로 기능해왔다.<sup>14)</sup> 이 밖에도 조선시대 지방의 일부 성황사 등에서도 신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기복의 장소로 영당이 기능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 2-2. 봉안된 상의 수와 공간 구성

영당은 봉안된 상의 수에 따라 一位影堂과 두 개 이상의 상을 봉안한 多位影堂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조선 태조의 진전인 경기전, 정조의 어진을 봉안한 화성행궁의 화령전 등은 한 개의 영정만을 봉안하기 위해 왕실 주도로 건립된 대표적인 일위영당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열성진전으로 분류되는 영희전, 신선원전 등은 여러 개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계획된 다위영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건립 주체에 따라 그 규모와 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일위영당은 대개 정면 3칸의 사당과 유사한 형식을 취한다.<sup>15)</sup> 그러나 다위영당은 배향된 영정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정면 칸수의 구성이 달라진다. 이중 신선원전과 같이 규모가 큰 것은 정면 칸수가 10칸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일위영당과 다위영당은 봉안과 배향 공간을 구성하

13) 『孤雲集』, 『淸道影堂記』 中 世之慕先生者, 有不待眞像而觀其彷彿。然苟欲仰其風儀之美, 則眞固不爲無助也。

14) 이윤선, 「여수 영당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민속경관 전략」, 『남도민속연구』, 14권, 2007, 285-291쪽.

15) 일위영당 중에서도 정면 5칸 이상의 규모인 것들도 있으나, 봉안 공간은 중심의 3칸이고, 양 측면의 협칸은 복도각이나 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정조대의 화령전이나 주합루와 같은 건물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는 방식이 다르다. 일위영당은 한 건물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건물 내부의 중앙에 배향을 위한 단을 마련한 뒤 그 위에 상을 배치한다. 단을 마련한 곳에는 감실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 감실 없이 뒷벽에 초상을 걸어둔 경우도 있다. 영정의 앞에는 榻 또는 卓을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다위영당의 경우에는 한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상을 봉안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때, 함께 봉안되는 상들의 位次가 모두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상이 놓이는 자리에 따른 공간적 위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昭穆制 또는 西上制로 대표되는 同堂異室制의 논의는 다위영당의 내부공간 배치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당의 봉안 공간은 유교적 제례공간의 구성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조선 초의 문소전과 같은 경우에는 前殿後寢의 배치를 따랐고, 전각에는 소목의 위차대로 영정을 배치하였다. 이와는 달리 영희전, 신선원전은 서쪽에서부터 위차대로 차례로 영정을 배치하는 서상제를 적용하기도 했다.<sup>16)</sup>

### 2-3. 봉안 대상의 생사 여부와 건립 의도

영당은 사후 인물의 영정을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로 생존중인 인물의 영당이 지어지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사후 인물의 영정을 모신 경우를 死者影堂으로, 생존 시의 인물을 위해 지어진 영당을 生者影堂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사자영당은 현존하거나, 기록이 남아있는 영당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른 시기의 예인 고려시대 개경의 경령전을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왕실 영당의 대부분은 선왕의 사후에 어진을 봉안하는 경우가 많다.<sup>17)</sup> 왕실이 아닌 민간에서 영당을 건립한 사례는 대부분 선조가 생전에 임금에게서 하사받은 초상화와 어서 등을 증하게 여겨 사후에 문중의 후손들이 영당을 짓고 봉안하거나, 후학들이 자신의 학문적 스승을 제향하기 위해 영당을 짓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살펴본 이색, 송시열, 최치원과 같이 명망이 높았던 학자들의 영당은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

러 곳에 지속적으로 지어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생자영당이 지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왕실영당의 경우, 생자영당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왕이 재위 중 자신의 어진을 제작하여 스스로 봉안해야 한다. 자신의 초상을 봉안하는 건물을 짓는 행위는 상징적인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왕실의 생자영당은 주로 왕권이 가장 강력했던 개국 시기, 즉 창업주의 재위시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했던 왕들의 재위기간에 지어졌다. 고려 태조의 영당은 12곳인데, 이들 중 어떠한 것이 태조의 생존 당시에 지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수와 의도를 통해 볼 때 생시에 지어진 것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태조의 영당이 특이한 점은 초상 외에도 소조상과 주조상을 봉안한 사례가 있다는 점인데, 이는 불교적 전통에 보다 충실했던 시대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조선 태조 역시 5곳의 많은 영당을 남겼는데, 이중 영흥의 준원전과 경주의 집경전은 태조의 생시에 지어진 것이다.<sup>19)</sup> 조선 태조 이후 생자영당이 다시 지어지는 것은 숙종대에 이르러서이다. 숙종은 강화에 장녕전을 짓고 자신의 어진을 봉안하는데, 이는 전란에 대비하여 어진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강화에 영당을 건립한 것은 실록, 선원록 등을 보관하는 史庫가 임란 후 외지로 이동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sup>20)</sup>

영조 역시 강화의 만녕전에 자신의 어진을 봉안하여,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조는 이 밖에도 태령전과 육상궁에 자신의 어진을 봉안하는데, 태령전은 당시 주된 궁궐로 사용되고 있던 경희궁 내의 전각이고, 육상궁은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묘였다.<sup>21)</sup> 궁궐 내의 전각에 자신의 어진을 봉안하여 스스로 생자영당을 조성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며, 이 같은 일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52년을 재위한 영조의 절대적 왕권을 전제로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에 뒤이어 즉위한 정조 역시 궁궐 내에 자신의

16) 여기서의 문소전은 세종대에 영정을 위판으로 대체하기 이전을 말한다. 아래의 문헌 기록을 통해 당시의 제도 정비 이전 문소전은 영정을 소목제로 배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14년, 1월 16일(병자)

商又曰：“文昭殿則用影子，廣孝殿則位板。今移安原廟，則用影子乎？位板乎？”上曰：“予以影子爲非。太宗亦曰：‘影子之法，甚非。’然令詳定所議定。”上曰：“原廟坐向序次，將如何？”軫曰：“前朝則太祖居中，左右昭穆。”

17) 고려시대 개경의 경령전은 장례 시 왕실에서 사용했던 영정을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봉안하였다.

18) 菊竹淳一, 「고려시대 裸形男子倚像-고려 태조 왕건상 試論」, 『美術史論壇』, 21호, 2005, 119-123쪽.

19) 조인수, 「조선 초기 태조 어진(御眞)의 제작과 태조 진전(眞殿)의 운영 -태조, 태종 대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3권, 2004, 124-138쪽.

20) 김우진, 「숙종의 강화도 축성과 御眞의 奉安」, 『朝鮮時代史學報』, 90호, 2019, 215-219쪽. 안선호는 이를 保障地 진전으로 분류한바 있다. 안선호, 앞의 책, 2011, 52-55쪽.

21) 안선호, 앞의 책, 2011, 49쪽.

초상을 봉안한 건물을 두었다. 창덕궁의 후원에 주합루를 짓고, 자신의 어진을 봉안하여 생자영당으로 조성하였다. 주합루는 후원 입구의 부용지를 앞에 두고 지어진 2층의 건물로, 1층은 규장각이라는 편액을 달았다. 규장각은 학문적 성격의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이후 정조가 정약용 등의 閣臣들을 요직에 중용하여 정치적 기반으로 삼은 기관이기도 하다. 영조가 최초로 궁궐 내에 자신의 영당을 두었다면, 정조는 자신이 설립한 궁궐내의 핵심 기관에 영당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다시 당대 왕조의 생자영당이 건립되는 경우는 등장하지 않는다.<sup>22)</sup> 왕실에서 지어지는 생자영당은 그 상징적 의미에 있어 선왕의 어진을 봉안했던 진전과는 다르다.

한편, 민간의 주도로 추앙받던 관리들의 초상을 생존 중에 봉안한 영당이 있는데, 이는 생사당 건립의 의도와 유사하다.<sup>23)</sup> 대표적인 예로는 고려말 안종원(安宗源, 1324-1393)이 강원도 강릉부사였던 시절의 덕망으로 그가 임지를 떠날 때 민중들이 초상을 봉안한 건물과 조선 성종대 靈山현감을 지낸 신담(申澹, 1519-1595)의 영당 등의 사례가 있다.<sup>24)</sup> 지역에 따라 조선후기까지 지방 관리들의 생자영당을 지어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곳도 있는데, 17-18세기 평양에서는 수십 명의 감사와 서윤의 초상을 봉안했던 건물에 대한 기록이 전하기도 한다.<sup>25)</sup>

### 3. 조선시대 영당의 분포와 건립 양상

#### 3-1. 조선전기 영당의 분포와 지리지의 분류

조선전기에 존재하고 있던 영당의 전반적인 분포는 당대의 지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530년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영당 중에는 고유한 전호 또는 당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전 또는 영당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 있다. 또한 특정 사찰에 승려나 특정인의 화상을 모신 건물이 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영당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통해 영당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대략 26곳인데, 이 건물들은 佛宇, 宮室 등 9가지의 분류 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조선전기의 영당은 불우나 궁실로 분류된 건물들에 집중되었고, 이곳에 배향된 인물들은 주로 왕실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당은 불우로 분류된 것이 9건으로 가장 많다. 이 중에는 고려시대의 왕을 봉안한 곳이 가장 많고, 고려 말 왕실 족친, 조선전기의 왕과 공신, 문종의 초상을 봉안한 곳들이 있다. 이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 중기까지는 왕을 포함한 특정 인물이나 가문의 영당 운영이 사찰을 중심으로 활발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사찰은 중창불사에 기여한 왕이나 가문의 願刹인 경우가 많은데,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수는 고려 시대의 것이 특히 많다.<sup>27)</sup>

입적한 승려의 상을 봉안하는 건물이 존재했던 것은 여러 사찰들에 남아 있는 조사당 건립의 전통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인사에는 신라시대의 승려 순응(順應, 생물년 미상)과 이정(利貞, 생물년 미상), 희랑(希郎, 생물년 미상)의 화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해인사에는 임진왜란 이후 입적한 유정(惟政, 1544-1610)의 비와 부도가 있는데, 진영은 지역의 儒林에 의해 그의 출생지인 밀양에 세워진 사당에 봉안되기도 했다.<sup>28)</sup>

이 밖에도 불우로 분류되어 있는 영당 중에는 신라

22) 고종대에 사진이나 초상을 제작하여 왕실의 생활공간에 걸여두었던 일이 있으나, 진위 여부에 논란이 있다. 또한 이를 봉안할 용도의 독립된 건물을 지었던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권행가, 『高宗皇帝의 肖像 : 近代 시각매체의 流入과 御眞의 變용 과정』,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6-119쪽.

23) 이러한 맥락에서 류홍렬(柳洪烈, 1911-1995)은 1936년 『진단학보』에 기고한 「조선사당발생에 관한 일고찰」에서 이 같은 유형의 영당을 생사영당生祠影堂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24) 이성훈, 『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34-609쪽. 신담의 생자 영당 기물인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이 지은 「靈山縣監申澹生祠堂記」가 전해지기도 한다.

25) 『承政院日記』, 1291책, 영조 45년 4월 己卯, “蓋成龍與李元翼李恒福李德馨, 皆中興元功, 而元翼之生祠, 在於平壤, 而其後追入, 殆滿三四十, 故毀之矣. 如元翼之大功臣, 而生祠不爲修補, 事涉如何矣. 請更問諸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置之.” 흥봉관은 이때 영조에게 평양생사당에 제향된 인물이 30-40인이자 했으나, 1773-4년에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한 체제공은 20명이 그 생사당에서 제향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樊巖先生集 권57, 碑 完平府院君李相國[元翼]生祠遺墟碑 “祠成百五十有餘載, 按使之有去思於民者, 民輒陞配如初, 又各有像厥位, 並公爲二十. 以濟恭所習聞言之, 延陵君李公萬元, 卽居一於二十”). 이성훈, 「조선후기 생사당(生祠堂) 건립과 생사당 봉안용 초상화의 제작: 평양(平壤)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020, 90호, 407쪽.에서 재인용

26) 박정미, 「16세기 星州 李氏 影堂寺刹 安峯寺의 규모와 운영」, 『泰東古典研究』, 31권, 2013, 57-84쪽.

27) 왕의 초상을 봉안했던 고려시대의 사찰은 眞殿寺院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박남수, 「진전사원(眞殿寺院)의 기원과 신라(新羅) 성전사원(成典寺院)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1권, 2012, 77쪽.

28) 이철현, 「密陽 儒林의 表忠祠 守護」, 『韓國佛敎學』, 48권, 2007, 451-480쪽.

22 논문

후대의 학자 최치원(崔致遠, 857-?)의 화상을 봉안한 곳이 있는데, 이곳은 최치원의 독서당이 나중에 영당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조선 시대의 공신이나 문중의 영당이 사찰 내에 지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전라도 보성군의 대원사에는 조선 전기의 문신 황희(黃喜, 1363-1452)의 영당이 있었고, 안동의 안봉사에는 잘 알려진 성주이씨 영당에 대한 기록이 있다. 봉안 인물의 생몰년만을 통해서도 영당의 건립 년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헌에 기록된 건물 중 상당수는 고려 시대 이전에 건립되어 유지되고 있었던 것들의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조선전기의 영당 분포 기록(『신증동국여지승람』, 1530의 분류를 따름)

구분	합계	명칭	봉안인물	위치
불우 佛宇	9	개태사 영진	고려 태조	영산현
		광명사 영당	고려 목종	개성부
		영통사	고려 문종, 홍자번	장단도호부
		단속사	최치원	진주목
		해인사	순응, 희정, 희량	합천군
		청계사	조인규	과천현
		승은전	조선 세조	양주목
		안봉사	성주이씨	성주목
대원사	황희	보성군		
궁실 宮室	5	목청전	조선 태조	개성부
		집경전		경주부
		경기전		전주부
		영송전		평양부
		준원전		영흥대도호부
사묘 祠廟	4	경순왕영당	경순왕	경주부
		성황사	성황신	전주부
		구룡산사	민간신	우봉현
		문묘	오성십철	평양부
고적 古蹟	2	마암영진	고려 노국공주	개성부
		해안사 영당	고려대 조종(祖宗)	개성부
궁전 宮殿	1	선원전	조선의 선왕, 선후	경도
진전 眞殿	1	봉선전	조선 세조	양주목
단묘 檀廟	1	문소전	조선 태조와 소2위, 목2위	경도
학교 學校	1	대성전	오성 십철	개성부
열녀 烈女	1	여막사당	조맹	함열현
효자 孝子	1	영당	하우명의 모(母)	인천도호부
합계	26			

불우로 분류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사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당으로 기능했던 사례들도 있다. 평양조씨의 원찰로 알려져 있는 청계사에 대한 아래의 기록에는 이곳에 조인규(趙仁規, 1237-1308)의 사당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sup>29)</sup>

[청계사(淸溪寺)] 청계산에 있는데, 이곡(李穀)이 지은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인규(趙仁規)의 사당기(祠堂記)가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8권, 경기 과천현

이 문헌에서 사당으로 기록된 건물은 실제로는 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인규에 의해 청계사의 불사가 이루어진 것은 1284년(충렬왕10)이고, 이후 영당은 1431년(세종 13)에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된다.<sup>30)</sup> 조인규의 후손인 조운(趙橐, 생몰년 미상)이 1687년(숙종 1)에 지은 「淸溪寺事蹟記」에 의하면 이곳에 조인규의 영당을 건립한 이후 후손들의 초상도 지속적으로 함께 봉안되었다.<sup>31)</sup> 청계사의 영당은 적어도 건립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이 영당을 사당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당에 위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지 않았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궁실로 분류된 5 곳은 모두 조선 태조를 봉안한 것들이다. 반면, 세조를 봉안한 崇恩殿은 근처에 봉선사

29) 조인규의 출신은 변변치 않았지만, 몽골어 통역관이 되어 세자 심(諱, 훗날 충렬왕)을 수행해 원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이후 그의 딸이 고려 충선왕비가 되어 부원군이 된다.

30) 황인규, 「청계산 청계사의 역사와 위상」, 『보조사상』, 39권, 2013, 254-295쪽.

31) 趙橐, 「淸溪寺事蹟記」中, 공이 돌아가매 자손들이 공과 興陽郡夫人趙氏의 眞影畫像을 그려 별장 小堂에 간직하고 뜰에 비석을 세워 그 공덕을 새겼으며 전담과 노비를 두어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그 후 공의 장남 莊敏公과 부인 淸州韓氏, 차남 忠肅公과 上洛郡夫人金氏, 충숙공의 아들 文靖公 및 卞韓國夫人吳氏, 문정공의 아들 文忠公과 부인 固城李氏의 초상도 아울러 소장하였다. 공의 아들 가운데 또한 벼슬이 參議에 이르렀으나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玄悟大禪師의 무를 가진 三重大匠 慈恩君이 일찍이 이 별장에서 살았는데, 그의 진영화상 역시 여기에 있다. 세월이 흐름에 관리가 소홀하여(중략) 정묘년(1567년)에 현과 판사를 지낸 부 등이 影堂에 제사하고 장차 역사를 하려 할 때 마침 國喪이 있어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중략)그리하여 무진년(1568년) 봄에 내외제손 천 이백여 명과(중략) 무릇 영정의 해지고 더럽혀진 공을 깨끗이 고쳐 그리고, 기울어진 집을 고치고, 또한 큰 공간 하나를 짓고 여섯 칸의 함을 만들어 화상을 비단보에 싸서 정숙공 이하의 영정을 함속에 넣어 堂宇의 동쪽 따듯한 방에 봉안 하였다. 그리하여 일이 있을 때에는 내어 모셔 堂中에 걸고 예를 올리고, 예가 끝나면 다시 함속에 모시고 자물쇠로 잠가두었다. (중략) 이에 공의 팔대 외손 초당 허엽이 청계사영당중수기를 짓고...(하략) 원문 해석은 始興郡誌編纂委員會, 『始興金石總覽』, 1988, 11-15쪽. 참조.

가 있었고, 원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불우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이 건물은 1472년 奉先殿으로 개호되면서 진전으로 다시 분류된 것이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승은전은 1632년 다시 남별전의 전호가 된다. 궁궐 내에 위치했던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선원전은 궁전으로, 문소전은 단묘로 분류되어 있다. 열성 진전으로 인정되었던 선원전은 궁전으로 분류되었지만 불교적 유습으로 비판받았던 문소전은 묘로 분류되었던 점은 두 영당간의 성격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묘로 분류된 4 곳 중에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영당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영당은 현재 유구나 유물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崇惠殿誌』를 통해 경주 김씨 문중에서 월성 안에 사당을 짓고 경순왕의 영정을 모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2)</sup> 이 건물은 임란으로 소실되어 1627년(인조 5)에 동천동에 다시 지어지며 東川殿으로 개칭된 이후, 1723년(경종 3) 敬順王殿, 1794년(정조 18)황남동으로 다시 한 번 옮겨지며 皇南殿으로 다시 한 번 바뀌었다.<sup>33)</sup>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이 임란 전이니, 『승혜전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조선전기의 경순왕영당의 존재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월성이라 기록된 입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사묘로 분류된 곳 중에 성황사나 구룡산사 등 민간 신앙의 장소에도 상을 봉안한 건물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문묘의 대성전에서도 확인된다. 이 건물들에서는 주로 초상이 아닌 소상을 봉안하였다. 또한, 아래 기록에서와 같이, 묘소 곁의 여막에 건물을 짓고 소상이나 영정을 봉안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조선전기에는 배향 공간에 봉안 인물의 상을 봉안했던 사례가 드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씨(李氏) 나이 16세에 조맹(趙孟)에게 시집갔다. 후에 조맹이 미친개에게 물려 죽었는데, 이씨가 묘에 여막을 지어 피눈물로 3년을 보내고, 토상(土像)을 만들어 사당에 안치하고, 아침저녁으로 살아 있을 때처럼 섬기며, 사철 의복을 마련해서 입혔다.<sup>34)</sup>

- 『신증동국여지승람』 34권, 함열현 열녀 편 中

32) 『崇惠殿誌』의 저자는 경주 김씨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김학수(金學銖, 생몰년 미상)이며, 1933년 2권 1책이 목판본으로 발행되었다. 김종호, 『崇惠殿誌』, 승혜전지 편찬위원회, 1987.

33) 장우영, 「경주 복천 옛 물길과 유적 형성과정의 기초연구」, 『新羅文化』, 제57호, 2020, 143쪽.

34) 李氏. 年十六歸趙孟. 後孟爲風狗所咬死, 李泣血廬墓三年, 置祠堂作土像, 朝夕如事生, 備四時衣帶以服之.

하우명(河友明) 진주(晉州) 사람인데 전 영의정(領議政) 연(演)의 아들이다. 부의 소래산(蘇來山) 아래에서 살았다. 어머니 이씨(李氏)가 살았을 때에는 지성껏 봉양하고, 죽으매 묘 옆에 여막을 짓고서 친히 나무를 저나르며 상식을 올리고, 3년 뒤에는 영당(影堂)을 짓고 철따라 식물(食物)을 반드시 먼저 올리어 효성이 순수하고 지극하였다. 조정에까지 들리매 정문을 세우고 납세와 부역을 면제하였다. 벼슬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sup>35)</sup>

- 『신증동국여지승람』 9권, 인천도호부 효자 편 中

### 3-2 조선 후기 영당 건립의 변화 양상

조선전기 이후의 영당 건립 양상은 조선전기와는 다르다. 앞서 살펴본 1530년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해 볼 때, 1760년대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影堂 또는 影殿의 분류가 단묘편에 독립적인 범주로 나뉘어져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우, 영당은 불우, 궁실, 사묘, 고적 등에 나뉘어 기록되어 있고, 영당이라는 별도의 분류는 없다. 또한, 단묘에는 문소전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계사에 대한 기록에서와 같이 사당과 영당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선후기의 지리지에서 영당을 단묘편에 별도로 기록한 것은 왕실 영당의 건립이 다수였던 조선전기에 비해 사대부 가문을 중심으로 한 사가영당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상황이 반영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상을 봉안한 건물을 위패판을 놓은 사당과는 달리 영당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전기에는 조상의 초상화 모사 등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봉안을 목적으로 사대부가에서 儒服本, 官服本 초상화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sup>36)</sup>

『여지도서』의 영당 관련 기록은 단묘로 분류된 것이 15건으로 가장 많다. 이 중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사묘로 분류되었던 경순왕영당이나 문묘 등 분류가 문묘로 바뀐 것도 있다. 그러나 문묘에 포함된 것은 대부분 문중이나 같은 학맥의 후손들이 조상이나 스승을 배향하기 위해 지은 사가영당이다.

이처럼 유학자의 초상을 봉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가영당의 대표적인 사례로 송시열

35) 河友明. 晉州人故領議政演之子. 居府之蘇來山下. 母李氏生時, 奉養盡誠, 及卒, 廬墓, 親負薪上食. 三年後, 造影堂, 凡節物必先薦, 孝誠純至. 事聞, 旌闈復戶. 官至同知中樞府事.

36) 이성훈, 앞의 책, 2019, 267-757쪽.

(宋時烈, 1607-1689)의 영당을 들 수 있다. 당대의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송시열의 영당은 그 수가 가장 많다. 『여지도서』에는 충청도 진잠, 경주, 영덕의 세 곳은 단묘로 분류되어 있고, 충청도 옥천의 영당은 인물 편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유학자를 봉안하기 위해 조선중기 이후 새로이 지어진 영당도 있는데,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초상을 봉안한 충북 보은의 長山影堂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표 2. 조선후기의 영당 분포 기록(『여지도서』, 1760의 분류를 따름)

구분	합계	명칭	봉안인물	위치
단묘 壇廟	15	영당	이원익	경기도 금천
		영당	장현광	선산
		영당	주자, 송시열	충청도 진잠
		인산영당	송시열	경주
		신안영당	송시열	영덕
		문묘	오성, 십철	성주
		영당	공자	고산
		공부자영당	공부자	함열
		안봉영당	성주이씨	성주
		사빈영당	의성김씨	안동
		호산영당	전주최씨	전주
		이천우영당	이천우	영광
		경순왕영당	경순왕	경주
		기자영전	기자	평안도 용강
기자영전	기자	평안도 성천		
인물 人物	4	용문영당	송시열	충청도 옥천
		익재영당	이제현	충청도 보은
		영당	-	전라도 장흥
		영당	김군산	청도
학교 學校	3	문포영당	공자	함경도
		복계영당	정간	영천
		영전	공자	함경도
사찰 寺刹	2	김부왕 영당	김부왕 (경순왕)	강원도
		영당	최치원	진주
고적 古跡	2	영전	고려태조	평안도 영유
		마암영전	고려 노국공주	
방리 坊里	1	영당리	송시열의 영당으로 추정	충청도 진잠
명관 名宦	1	영당	-	창녕
합계	28			

여러 지역에서 건립된 공신들의 영당에 대한 기록도 『여지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무신이자 이성계의 조카인 이천우(李天祐, ?-1417)의 영당은

1616년(광해군 8) 전남 영광에 지어졌으며, 조선중기의 문신 이원익(이원익, 1547-1634)의 영당도 그의 출생지인 경기도 금천현에 지어졌다. 이러한 사가영당의 주된 건립 주체는 향내의 유림들이었으며, 당시에 봉안되었던 많은 초상화들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는 불우로 분류되었던 안봉사의 성주이씨 문중 영당은 『여지도서』에는 단묘로 분류되어 있다. 이 영당은 명종대까지는 안봉사 경내에 있었다. 그러나 1684년(숙종 10)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기며 齋舍와 神廚를 따로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영당의 운영이 사찰과 분리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37)</sup> 『여지도서』의 안봉영당이 단묘로 기록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여지도서』에서 인물과 학교로 분류된 영당에는 주로 공자나 유학자들의 화상이 봉안되었다. 함경도에는 공자의 영당이 두 곳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대의 유학자들이 당장에는 상을 봉안하는 관습을 배척하지 않았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봉안을 목적으로 한 주자(朱子(熹), 1130-1200)의 초상화 제작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sup>38)</sup> 『여지도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자의 초상을 봉안했던 곳으로 川谷書院(1558년 건립), 忠賢書院(1581년 건립)등이 있다. 현재도 여러 서원에 남아 있는 영당 건립의 전통은 16세기 중반 이후 서원이 급격히 늘어난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안도 지역에 위치했던 기자 영전 두 곳에서도 배향 인물의 상을 봉안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商代의 현인으로 알려진 기자(箕子)는 성리학적 통치 이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조선중기에 들어 예를 숭상하는 유교 문화의 성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고, 1600년(선조 33)에는 遺像이 처음으로 등장해 평양 仁賢書院에 봉안되었다. 인현서원은 1564년(명종 19)에 건립되었는데, 기자의 상을 봉안하면서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사액되었다.<sup>39)</sup> 『여지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평안도 용강과 성천의 기자영전은 각각 1721년(경종 1)과 1696년(숙종 22)에 건립되어 인현서원의 <箕子陳洪範圖> 모본을 봉안한 것이다.<sup>40)</sup>

37) 박정미, 앞의 글, 2013, 63-64쪽.

38) 박정애, 「조선시대 주자 숭모열과 그 이미지의 시각화 양상」, 『대동문화연구』 제93집, 2016, 199-242쪽.

39) 이때 봉안된 유상은 조선중기의 문신 서성(徐滄, 1558-1631)이 명나라에서 구해온 <箕子陳洪範圖>라는 그림이었다. 유미나, 「조선 시대 기자(箕子)에 대한 인식과 기자(箕子) 유상(遺像)」, 『강좌미술사』, 44호, 2015, 214쪽.

앞서 살펴본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가 당대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영당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지리지의 비교를 통해 조선중기를 전·후로 한 시기에 영당 건립의 양상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는 왕이나 왕실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 왕실 영당이 다수 사례였던 것에 비해 조선후기에는 유학자들을 배향한 사가 영당 건립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민간에서 상을 봉안하는 일이 점차 확산되어가자 이에 대한 예학자들의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영당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4. 조선중기 이후 영당 건립의 변화 양상

##### 4-1. 二主에 대한 인식과 영당 제도의 구분

앞서 살핀 것처럼, 조선 전기의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당 또는 영전이라는 분류가 없다. 이는 『여지도서』와 같은 조선후기의 지리지에서 영당을 별도로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조선중기 이전까지 사당과 영당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당대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학이 점차 발달하면서 二主로 인식되었고, 俗禮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조선중기의 학자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문집인 『고봉집』 제 2권 「二主에 대한 설」 편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물으신 영당(影堂)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고려후에는 사당에 이주(二主)가 없습니다. 일찍이 그 뜻을 근원해 보면 조고(祖考)의 정신이 이미 흩어졌으니, 이곳에 모으고자 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판(祀版)이 있고, 또 영정(影者)이 있다면 이것은 이주인 것입니다……”(중략) 이미 사판이 있고 또다시 영정이 있다면, 이것은 이주가 된다. 이는 비록 고려후가 아니나 속례가 이와 같아서 또한 감히 폐지할 수 없으니, 마땅히 적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고금의 마땅함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주를 받들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며, 또 집안에서 영정을 모시고 다시 사판을 받들어 제사를 행한다면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sup>41)</sup>

40) 『承政院日記』, 英祖 1年 乙巳(1725) 5月 19日(丙辰) 又以禮曹言啓曰, 因平安道幼學韓聖堂等上言, 本曹覆啓, 龍崗黃龍城中箕聖畫像所奉祠宇, 一依成川影殿例, 特爲宣額, 以爲永久尊奉之地事, 啓下矣. 乙酉年成川影殿揭額致祭時, 直以箕聖影殿, 爲其額號, 而勿書某年賜額等小字, 祭文則使知製教製送矣. 今亦依此舉行之意, 分付藝文館, 何如? 傳曰, 允.

앞의 글에서 언급된 祠版은 곧 위패인데, 기대승은 제향의 대상으로 영정과 위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속례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당대의 사당에 위패와 함께 상을 봉안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대승은 같은 글에서 이러한 일이 朱子가 考妣 두 신주를 칭하며 “중자(宗子)가 있는 곳에 이주(二主)를 받들어 따른다.”고 언급했던 말을 오해하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sup>42)</sup> 이와 같은 조선중기 예학자들의 논의는 이후 사당에 영정이 아닌 위패를 봉안하는 전통을 확립시키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가 있기 전까지 제향 대상의 상과 위패를 동시에 봉안했던 일이 사가영당에서만 발생했던 것은 아니다. 조선전기 개성 성균관을 기록한 문헌에는 대성전에 소상을 봉안하였고, 동무와 서무의 70제자 및 현인은 위패를 봉안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화상이 있으니 다른 지역의 학교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표현도 함께 덧붙이고 있다.

[성균관(成均館)] 탄현문(炭峴門) 안에 있다. 대성전(大聖殿)에는 오성 십철(五聖十哲)의 소상(塑像)을 봉안하였다.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는 70제자 및 역대 여러 현인의 위판(位版)이 있다. (중략) 문묘(文廟)의 모습이 예전과 같고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화상이 엄연(儼然)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다른 향학(鄉學)에 비할 것이 아니다.<sup>43)</sup>

- 『신증동국여지승람』 4권, 개성부 상

개성 문묘의 대성전에 봉안되었던 소상들은 불교의식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574년(선조 7)埋安되었고, 이후로는 위패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4)</sup>

41) 奇大升, 「二主說」, 『高峯集』, 卷第二 中 承詢及影堂. 按古禮廟無二主. 嘗原其意. 以爲祖考之精神既散. 欲其萃聚於此. 故不可以二. 今有祀版又. 有影. 是有二主矣云云. ... 夫既有祀版. 又有影. 是爲二主. 雖非古禮. 而俗禮如此. 亦不敢廢之. 則必當爲酌中之制. 以適古今之宜. 원문의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참조.

42) 奇大升, 「二主說」, 『高峯集』, 卷第二 中 按家禮四時祭章前一日設位陳器條輯註. 未子曰. 宗子所在. 奉二主以從之云云. 嘗觀此註. 未解二主之義如何. 意是考妣二主. 而無所質問. 恒以爲疑也.

43) 成均館. 在炭峴門內. 大聖殿安五聖十哲塑像. 東, 西廡有七十子及歷代諸賢位版. (中略) 廟貌如舊, 先聖先師之像儼然猶存, 非他鄉學之可比也

44) 韓浚謙(1557-1627), 「柳川筭記」 中 갑술년(1574) 여름에, 송도(松都)의 국학(國學)에 모셨던 선성(先聖)과 십철(十哲)의 소상(塑像)을 매안(埋安)하고, 대신 위판(位版)으로 모시라고 명령하였다. 당초 고려 충렬왕 29년(1303) 계묘 윤5월에 국학 학정(學正) 김문정(金文鼎)이 선성·십철의 소상과 문묘의 제기를 가지고 원나라로부터 돌아왔다. 이것은, 대개 찬성사(贊成事)

이 밖에도 사묘로 분류된 평양부의 문묘에서도 오성십철의 소상을 봉안하였다. 그러나 개성 문묘에서와 같이, 조선중기를 전·후로 주로 공적인 제향 장소의 소상들은 매안되거나 파괴되어 곧 위패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조선후기의 문묘에는 상을 봉안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19세기의 문헌인 『常變通攷』 제 27권 「學校禮」 편에는 상을 봉안하는 것이 속례이니만큼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45)</sup>

4-2. 사찰에서 마을로의 주된 입지 변화

조선전기와 비교해 조선중기 이후의 영당은 더 이상 사찰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서원 또는 문중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주된 입지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8곳으로 그 수가 가장 많았던 사찰내의 영당은 『여지도서』에서는 2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두 곳의 영당 모두 조선시대의 인물을 배향한 것이 아니며, 그 중 하나는 조선 전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단속사의 최치원 영당을 기록한 것이다.<sup>46)</sup>

안유(安裕)가 건의하여 심학전(瞻學錢)을 설치하고, 또 남은 재물을 김문정에게 주어 소상을 구입해다가 다시 국학을 세워 소상을 봉안하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의 칠십자(七十子)는 위판으로 모시게 했던 것이다. (중략) 그 후에도 대대로 높이고 중히 여겨 유상(遺像)이 엄연하게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소상은 부처와 같아서 명궁(明宮)에 제사 시내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말이 있어서, 수의하여 위판으로 바꾸고, 소상을 모지(某地)에 매안(埋安)하게 하였던 것이다.

甲戌夏。命去松都國學先聖十哲塑像。代以位板。初高麗忠烈王二十九年癸卯閏五月日。國學學正文文鼎。以先聖十哲像及文廟祭器還自有元。蓋贊成事安裕建議置瞻學錢。又以餘財付文鼎。購得以來。更建國學。安以塑像。東西廡七十子。則用位板。忠宣改國學爲成均館。至恭愍王十六年七月。移文宣王塑像于崇文館。文武百官冠帶侍衛。終麗朝九十年中。經紅賊亦免兵燹。太祖革命徙都漢陽。而以此府爲留後官。其所謂成均館者。府之人稱學堂焉。廟貌如舊一從麗代之制。恭靖太宗旋復還位。視以國學。成宗中宗亦嘗臨幸。祇謁聖廟。代各崇重。遺像儼然。至是有言。塑像以佛不合明宮之薦。命收議。易以位板。

45) 柳長源, 『常變通攷』, 「學校禮」中 구씨가 말했다. “소상(塑像)을 설치하는 예는 중국에 없었고,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뒤부터 비롯되었다. 삼대(三代) 이전에는 신에게 제사함에 모두 신주(神主)를 사용하였고 이른 바 소상을 설치하는 예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 공성(孔聖)을 제사하면서 언제부터 소상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후세 사람들은 그것이 그릇된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또 이교(異教)의 풍속을 따라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군(郡)마다 다르고 현(縣)마다 달라 장단(長短)과 풍척(豐瘠)이 일정하지 않다. 그 소상은 ‘신통하여 밝히고 [神而明之]’,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無聲無臭]’ 도가 결코 아니다.”

○丘氏曰：“塑像之設，中國無之，自佛敎入中國，始有也。三代以前，祀神皆以主，無所謂像設也。不知祀吾孔聖，何時而始爲像。後世莫覺其非，亦徇異敎而爲之，郡異縣殊，長短豐瘠不一。其像甚非神而明之無聲無臭之道也。”

46) 강원도 황산사라는 사찰 내에 김부왕영당(金傅王, 김알지 30세 손 경순왕)이 있어 그 곳에 소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고, 진주의 단속사에는 최치원이 쓰던 독서당을 후에 영당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중 최치원의 영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

앞서 살펴본 두 지리지의 내용을 통해 영당 건립의 주된 입지가 변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동된 사가영당은 주로 증가가 자리 잡은 마을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지리지 상에서는 대부분 단묘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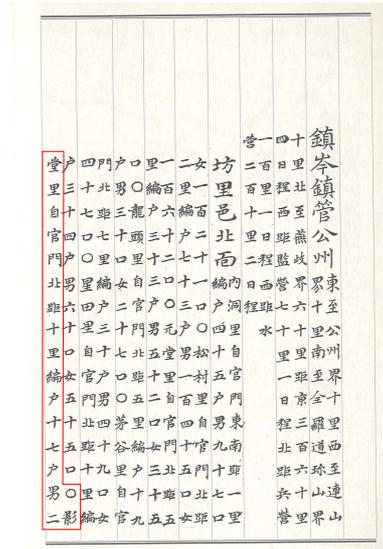


그림 1. 『여지도서』 충청도 진잠현 영당리(원문 이미지 출처: 김우철(외)역주, 『여지도서』, 디자인호름, 2009 1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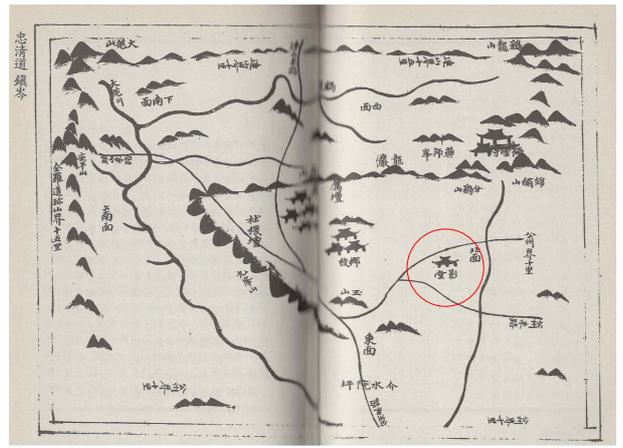


그림 2. 『여지도서』 충청도 진잠현의 영당 (이미지 출처: 김우철(외)역주, 위의 책, 2009 110-111쪽.)

『여지도서』에서 등장하는 영당리라는 지명은 이러한 입지 변화를 잘 보여준다.(그림 1.) 충청도 진잠의 영당리는 단묘편에 주자와 송시열을 함께 배향한 영당이 있던 성전리와 연결한 곳이다. 성전리와 영당리는 모두 진잠현 관아로부터 북쪽으로 10리가량 떨어져 있다고 기록된 마을이다. 문헌에 함께 수록된 지도에도 영당 건물이 표기되어 있는데, 영당리라는 지명은 이

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동일 건물로 생각된다.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

조선후기의 사가영당 중에는 주택 내에 지어진 것들도 있다. 19세기의 문헌으로 추정되는 『東國輿地備考』 한성부 편에는 조선중기의 문신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화상이 순화방 창의동 청풍계에 있었던 저택에 봉안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다.<sup>47)</sup> 아래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면, 청풍계에 있는 김상용의 화상이 그려진 것은 이보다 훨씬 전인 영조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에 공신들의 화상 제작이 매우 활발했고, 이중 상당수는 거주지에 봉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취로가 아뢰기를, “근래에 인가(人家)에도 화상이 많고 신의 집에도 있는데 지금 보면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중략) “신이 고 상신 박순(朴淳)의 화상을 보았는데 이미 백 년이 지났으나 채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 상신 김상용(金尙容)의 화상이 지금 청풍계(淸風溪)에 있는데 채색이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상을 모사하는 경우는 한결같이 본래의 색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김상용의 화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어찌 색이 변하겠는가. 강화도에는 이 사람의 화상이 없는가?”하니, 조정만이 아뢰기를, “이것은 모르겠습니다.”하자, 김취로가 아뢰기를, “청풍계에 과연 그 화상이 있으니, 신도 봄 무렵에 보았습니다.”<sup>48)</sup>

위의 기록에서처럼 조선중기 이후 공신들의 화상은 주로 임금이 직접 제작에 관여하여 하사한 것들이고, 어서 등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봉안건물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 위치한 영당중 대다수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근래에 인가에 화상이 많다는 기록으로 보아 지리지에 기록되지 않은 건물들 중에도 영당으로 기능하던 것들이 다수 존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4-3. 유교적 제도의 흡수와 서원으로의 확장

조선 중기 이후 지어진 사가영당 중에는 점차 그 규

47) 『東國輿地備考』, 漢城府, 第宅 中 김상용(金尙容)의 집 순화방 창의동(彰義洞) 청풍계(淸風溪)에 있다. 태고정(太古亭)·늪연당(濼然堂)이 있고 선원(仙源 김상용의 별호)의 화상을 봉안했다. 후손들이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으므로 세상에서 창의동 김씨라고 일컫는다. 시내 위의 돌에 ‘대명일월 백세청풍(大明日月百世淸風)’이라는 8자를 새겼다.

48) 『承政院日記』, 영조 11년 을묘 8월 22일 무자 中 取魯曰, 近來人家, 多有畫像, 臣家亦有之, 而卽今所見, 漸異於前矣. (中略) 臣見故相臣朴淳之像, 已過百年, 而彩色不變, 且故相臣金尙容畫像, 方在淸風溪, 而彩色亦不變. 凡模像者, 一依本色, 爲好矣. 上曰, 金尙容之畫像, 不甚久遠, 何可滌色乎? 江都則無此人遺像耶? 正萬曰, 此則不知矣. 取魯曰, 淸風溪, 果有其像, 臣亦於春間見之矣.

모가 커지며 서원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는데, 특히 안동지역에 그 사례가 많다. 그 중 의성김씨의 영당인 泗濱影堂은 안동 임하의 경출산에 있던 김진의 墳庵<sup>49)</sup>을 1675년(숙종 원년)에 확장하고 후손들이 遺像을 봉안하며 최초의 사빈영당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건립을 발의하는 통문에는 영정을 봉안하기 위한 精舍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sup>50)</sup>

이후 11개월여 후인 1681년 10월, 후손들은 다시 김진의 다섯 아들인 약봉 김극일(藥峰 金克一, 1522-1585), 귀봉 김수일(龜峯 金守一, 1528-1583), 운암 김명일(雲岩 金明一, 1534-1570), 학봉 김성일(鶴峰 金誠一, 1538-1593) 남악 김복일(南嶽 金復一, 1541-1591)을 함께 배향할 것을 발의하였고,<sup>51)</sup> 1687년에 습후이 이루어지면서 김진의 영정을 봉안한 영당의 당호는 景德祠로 변경되었다.<sup>52)</sup> 그러나 경덕사는 원래 김진의 분암이 위치해 있던 곳이었으므로 그 장소가 협소하였다. 또한 齋室이 누추하다는 이유로 1709년 마을 밖 사수변으로 영당을 이건하게 되면서 서원으로 변화되었다.<sup>53)</sup>

그러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서원으로 확장된 사빈영당은 곧 훼손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동지역 儒林들이 올린 상소문이 『泗濱誌』를 통해 전해진다. 그 주된 내용은 김진의 영당이 서원으로 확대된 후손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명칭과 기능을 다시 예전과 같이 사빈영당으로 변경할 것이니 김진 부자에 대한 제향을 지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sup>54)</sup>

49) 분암은 묘를 보살피기 위해 先塋결에 지었던 것으로, 상중이나 제를 위해 이곳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때에 따라 精舍가 되기도 했다. 김진의 분암은 후일 영당, 서원으로 연결되었다.

50) 본 논문의 「乙卯創建時日記」, 「分江書院創院日記」, 『鳳岡影堂營建日記』의 원문 해석은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앞의 책, 2007을 참조하였다.

『泗濱誌』中 「乙卯創建時日記」, 1675년 7월 12일 이에 경출산 아래 정사를 창건하여 장차 영정을 봉안하려 하는데 景出山下創建精舍. 將以奉安遺像

51) 『泗濱誌』中 「乙卯創建時日記」, 1681년 10월 3일 27명이 본 당에 모였는데, 대개 약봉, 귀봉, 운암, 학봉, 남악 다섯 선생을 배향하는 일 때문이었다. 이에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섯 선생의 덕행과 문학이 후인에게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니 동당에 함께 제향을 누림이 참으로 정례에 들어맞으니, 지금 여기에 함께 배향하는 거사는 실로 사람의 막대한 경사이다.” 二十七人會于本堂蓋以藥峰龜峯雲岩鶴峰南嶽五先生配享事也乃合辭曰 “五先生德行文學足以矜式後人而同堂合食久愜禮則今此共享之舉實爲士林莫大之慶也”

52) 『泗濱誌』中 「乙卯創建時日記」, 1687년 3월 7일 날이 맑자 사당 문 밖에서 개좌하여 사당의 명칭을 의논하여 경덕사라고 하였다. 明開坐于廟門外議定廟號曰景德祠

53) 배창현, 전봉희, 「문헌자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안동지역 영당(影堂) 건립의 성격」,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 97-98쪽.

안동의 汾江書院 역시 영당에서 비롯되었다. 이 서원의 건립은 1699년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초상을 봉안하기 위해 지어진 영당으로 시작된다. 분강서원 역시 처음부터 서원으로서의 건립을 표방한 것이 아니었고, 이현보를 제향 하는 건물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관아에 올린 영당 건립 청원서에서 잘 확인된다.<sup>55)</sup> 이보다 하루 앞선 친족 간의 발의 시에는 精舍를 세워 옛 영당의 제도를 본받겠다는 표현도 사용되었다.<sup>56)</sup>

그러나 이후의 기록에서는 사람들 간에 시설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서원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sup>57)</sup> 분강서원의 건립과정에 주변의 향교, 서원의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기존의 영당을 서원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유림들 사이에 큰 반감이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 공사는 1699년의 발의를 시작으로 3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1702년 9월 경 마무리되었다.<sup>58)</sup> 이러한 건립 과정을 담은 『分江書院創院日記』가 전하는데, 같은 해 10월 위패와 영정이 봉안되는 과정과 1703년의 제향기록까지를 담고 있다.

## 5. 결론

영당은 상을 제작하고 봉안하는 전통이 정착된 삼국 시대로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당과 더불어 주된 제향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영당의 건립은 특히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에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개국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조선시대의 영당은 조선중기 예학의 확산

전·후로 그 인식과 입지, 제도적 이용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주로 영당의 건립 주체였던 유학자 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의 영당 건립 경향의 변화는 당대의 지리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전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영당은 주로 사찰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 대개 원찰로 알려진 것들이다. 또한 청계사의 조인규 영당의 사례에서처럼 실제로는 상을 봉안했지만 사당으로 기록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영당이라는 분류를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당에 위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지 않았던 당대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성전과 같이 학교로 분류된 곳에서도 공자나 현인들의 상을 봉안했던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반면, 조선후기의 기록인 『여지도서』에는 사찰에 지어진 영당은 단 두 곳뿐이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단묘와 인물의 분류에 영당이라는 구분을 두어 기록하였다. 이는 조선중기를 기점으로 상과 위패를 봉안한다는 차이점을 영당과 사당의 주된 구분 기준으로 두는 인식이 분명해진 것을 보여준다. 조선중기의 예학자들은 위패와 함께 상을 봉안하는 것을 속례로 규정했는데, 이러한 논의는 영당의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교가 지배이념으로 정착되는 조선중기 이후로 사찰에 지어지는 영당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왕에게서 하사받은 초상을 봉안하기 위해 문중이나 민간에서 지어진 영당의 건립은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영당의 주된 입지가 사찰에서 이동되며 충청도 진잠현의 영당리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부 마을의 지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대의 저명한 성리학자들을 제향 하는 영당은 때로는 그 규모가 커지며 서원 설립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제향 대상의 상징이 달랐을 뿐, 영당의 공간 구성과 성격이 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도 영당의 제도가 서원의 구성 요소로 무리 없이 이용될 수 있었던 이유로 보여진다. 이러한 영당들은 서원이 철폐된 이후에도 학맥의 장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되었다. 현재에도 서원에서 영당의 제도가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영당의 건립 경향과 조선

54) 배창현, 전봉희, 앞의 글, 2016, 97-98쪽.

55) 『分江書院創院日記』, 1699년 7월 12일  
오후에 이명하·이백업·이동필 등이 관아에 들어가서 청원서를 올리고 결제를 받았다. 그 결제에서 말하기를, “선현의 유풍이 산처럼 높고 물처럼 유장하여, 후손들이 영당(影堂)을 지어서 마음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려하네.”  
午後李明夏李白業李東弼等。入官門呈文得題則曰。“先賢流風山高水長後裔之營心思”

56) 『分江書院創院日記』, 1699년 7월 11일  
당 언덕에 정사를 하나 세워 옛 영당의 제도를 본받고자...  
堂畔岡建一精舍。以倣古者影堂之制

57) 『分江書院創院日記』, 1700년 9월 29일  
농암 이 선생을 경건하게 받들어 높이자는 의논이 지난번에 발의되었는데, 이번 이 모임에서 이미 그 논의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영당을 서원 건립에 맞추었으므로...  
龔巖李先生崇奉揭處之議發口日。而今此口會已得完因其影堂口建書院

58) 공사를 마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分江書院創院日記』의 1702년 9월 17일의 기록 중 사당의 단청 칠을 비로소 마쳤다는 부분을 통해 이즈음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기 이후의 주된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초상 봉안과 제향 전통의 맥락이 보다 면밀히 이해되기를 기대한다. 보다 구체적인 영당의 건축 구성과 추모 공간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내용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高峯集』
2. 『孤雲集』
3. 『東國輿地備考』
4. 『鳳岡影堂營建日記』
5. 『分江書院創院日記』
6. 『泗濱誌』
7. 『常變通攷』
8. 『崇惠殿誌』
9. 『承政院日記』
10. 『新增東國輿地勝覽』
11. 『輿地圖書』
12. 『朝鮮王朝實錄』
13. 菊竹淳一, 「고려시대 裸形男子倚像-고려 태조 왕건상 試論」, 『美術史論壇』, 21호, 2005
14. 권행가, 『高宗 皇帝의 肖像 : 近代 시각매체의 流入과 御眞의 變용 과정』,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5. 김성환, 「고려시대 태조(太祖)의 진전(眞殿)과 봉업사(奉業寺)」, 『선사와 고대』, 57권, 2018.
16. 김우진, 「숙종의 강화도 축성과 御眞의 奉安」, 『朝鮮時代史學報』, 90호, 2019
17. 김우철(외)역주, 『여지도서』, 디자인흐름, 2009
18. 김종호, 『崇惠殿誌』, 송혜진지 편찬위원회, 1987
19. 박남수, 「진진사원(眞殿寺院)의 기원과 신라(新羅) 성전사원(成典寺院)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1권, 2012
20. 박정미, 「16세기 星州 李氏 影堂寺刹 安峯寺의 규모와 운영」, 『泰東古典研究』, 31권, 2013, 57-84쪽.
21. 박정애, 「조선시대 주자 승모열과 그 이미지의 시각화 양상」, 『대동문화연구』 제93집, 2016
22. 배창현, 전봉희, 「문헌자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안동 지역 영당(影堂) 건립의 성격」,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
23. 始興郡誌編纂委員會, 『始興金石總覽』, 1988
24. 안선호, 『조선시대 진전(眞殿) 건축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5. 유미나, 「조선 시대 기자(箕子)에 대한 인식과 기자

(箕子) 유상(遺像)」, 『강좌미술사』, 44호, 2015

26. 이성훈, 「조선후기 생사당(生祠堂) 건립과 생사당 봉안용 초상화의 제작: 평양(平壤)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90호, 2020
27. 이성훈, 『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8. 이윤선, 「여수 영당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민속경관 전략」, 『남도민속연구』, 14권, 2007
29. 이철현, 「密陽 儒林의 表忠祠 守護」, 『韓國佛敎學』, 48권, 2007
30. 장우영, 「경주 북천 옛 물길과 유적 형성과정의 기초연구」, 『新羅文化』, 제57호, 2020
31. 조인수, 「조선 초기 태조 어진(御眞)의 제작과 태조진전(眞殿)의 운영 - 태조, 태종 대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3권, 2004
32. 황인규, 「청계산 청계사의 역사와 위상」, 『보조사상』, 39권, 2013
33. Chang Hyun Bae, BongHee Jeon, 「The Origins And Changes Of *YOUNG-DANG* Architecture As An Intermediate Ritual Pavilion」, 『Eeat Asian Architectural history Conference 2017』, 2017

접수(2021. 04. 21)

수정(1차:2021. 07. 06)

게재확정(2021. 07. 12)